국제표준문자코드 제안 한자 자형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이재훈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한자 자형 표준화의 필요성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영문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자신들의 문자를 어떻게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은 연구를 진행시켜 왔으며, 그 결과로 현재 국제문자표준화사업이 상당한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한자문화권에서도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이 주축이 되어 한자의코드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ISO/SC2/WG2 산하의 IRG (Ideographic Rapporteur Group)라는 국제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로 1998년 12월까지 전부 27,486자에 대한 코드가 통일되어 ISO의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한자의 표준화를 위해서 현재 추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글자들은 모두 UNICODE에 수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글자들을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에 앞으로 우리의 한자 사용 환경은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더 많은 한자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지금까지 한자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받아왔던 국학 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제회의 석상에서 진행된 작업은 주로 각국에서 제안한 한자 를 서로 비교해서 같은 글자에 동일한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작 업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한자에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 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글자의 모습, 즉 자형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한자를 일본, 중국, 대만, 월 남에서 제출한 한자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한자 자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제출한 한 자 중에는 글자를 이루는 字素의 모습이 들쭉날쭉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 우와 필획이 많거나 적어 자형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에서 제출한 한자는 그 모습들이 모두 통일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均이라는 글자와 昀이라는 글자를 비교할 때에 勻속에 들어 있는 그라 는 字素의 모습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 면 그것은 우리의 필사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필사 습관에 의한 자형이 인쇄체와 국내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한자 자형. 그리고 심지어 국제표준화를 위한 회의에 제출된 컴퓨터용 자형(Font)에 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서 한자 자형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 한자를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꼭 표준화된 한자를 써야 한다는 법이 없다. 한자는 쓰여지는 방식에 따라 상당한 예술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글자라도 얼마든지 달리 쓸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예가들의 글씨에서 우리는 다양한 자형을 통해서 고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한다. 또 인쇄체의 경우에도 인쇄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서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서체의 종류에 따라 자형이 달라질 여지가충분히 있다. 물론 이런 자유는 용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한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쓰여지는 한자가 어떤 과정을 거친 변형인가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방면에서 필요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한자의 기초교육 현장에서 발견된다. 앞에서 말한 均과 阵을 배우는 학생들이 편방을 제외한 부분이 같은 勻이면서도 어째서 모습이 다른가를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

문이다. 또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한자 자형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에 의거해서 자형을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서로 다른 한자 자형을 채택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런 혼란이 서로 지속될 때에는 같은 한자를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한자로 오인하고 각각의 Font를 제작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한자 자형을 표준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된다. 이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IRG에 제안한 한자들 중에서 형태에 오류가 있는 글자들을 지적하여 바로 잡도록 하고 자형의 차이가 있는 유형을 수집하여 각 유형별로 어떤 모습의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짧은 글에서 모든 유형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표준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관해서 필자는 서경호, 민병준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표준화가 필요한 유형의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이 글에서의 검토는 최종적인 표준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검토는 우리나라 한자의 자형이 지닌 문제를 지적해 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자형을 중심으로 표준화할 것인가는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하에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자형에 오류가 있는 글자

다음에 제시하는 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IRG에 제안한 한자 중 자형에 오류가 있는 것들이다. 이 글자들은 시급히 올바른 형태로 고쳐 IRG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형태의 글자는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각 유형마다 큰 글씨로 예를 든 것은 각 자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잘못된 형태의 앞 글자가 뒤의 글자로 고쳐져야 함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1) 脫 劃

이 유형의 글자들은 획이 결여된 것 이외에는 자소의 형태가 모두 같은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일곱 글자가 발견되었다.

- ①都→嘟 莽→莽
- ② 媺→媺, 癓→癓, 覆→霺
- ③ 觼 → 觼
- ④ 鑮 → 鑮

①의 두 글자는 '이 빠져 있고, ②의 세 글자는 一이 빠져 있다. ③의 글자는 호가 又로 잘못 쓰여져 2획이 줄었다. ④의 글자는 */가 빠져 3획이 줄었다.

2) 多 劃

이 유형의 글자들은 올바른 형태의 글자와 비교하여 자소 1획이 더 많은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네 글자가 발견되었다.

- ① 兎→兎
- ② 稽 → 稽
- ③ 窿→窿. 竷→竷

①의 글자는 자소 儿의 /가 위의 口를 관통하지 않음으로써 1획이 늘어났으며 ②의 글자는 2획의 자소 七가 3획의 자소 上으로 잘못 쓰여졌다. 그리고 ③의 두 글자는 3획의 자소 欠가 4획의 자소 欠로 잘못 쓰여졌다.

3) 異 形

이 유형의 글자들은 총획수는 같으나 일부 자소가 다른 형태의 것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다. 다음의 열아홉 글자가 발견되었다.

- ① 墏→壁, 蚜→蚜
- ② 嶏→嶏, 港→港
- ③ 亶→亶, 擅→擅, 譠→譠
- ④ 擤→擤
- ⑤ 旝→旝. 癐→癐. 鬠→鬠
- ⑥ 烷→烷
- ⑦ 牽→ 牽

- ⑧ 柺 → 柺
- 9 没→ 浂
- ⑩ 蠉→ 蠉
- ① 蠽→ 蠽
- ⑫ 鐪→鐪
- (13) 颶→颶

①의 두 글자는 각각 #과 파가 따로 잘못 쓰였으며, ②의 두 글자는 각각 근와 문가 문와 근로 잘못 쓰였다. ③의 세 글자는 旦이 且로 잘못 쓰였으며, ④의 글자는 丌가 卅로 잘못 쓰였다. ⑤의 글자 중 앞의 두 글자와 뒤의 한 글자는 각각 人과 八이 八과 人으로 잘못 쓰였으며, ⑥의 글자는 Ը이 논로 잘못 쓰였다. ⑦의 글자는 ㄱ이 므로 잘못 쓰였으며, ⑧의 글자는 力이 ㅁ로 잘못 쓰였다. ⑨의 글자는 ㄱ이 ㅁ로 잘못 쓰였으며, ⑩의 글자는 ㅣ가 ㅣ으로 잘못 쓰였다. ⑪의 글자는 ઢ가 虜로 잘못 쓰였다. ⑪의 글자는 ઢ가 虜로 잘못 쓰였으며, ⑩의 글자는 屬가 吳로 잘못 쓰였다.

3. 표준화가 필요한 자소의 유형 및 표준화 방안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IRG에 제안한 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유형을 일부 검출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표준화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 (1) 中國의 『康熙字典』, 韓國의 『新字典』을 비롯한 字典類를 참고한다.
- (2) 字源에 根據한 傳統字形과 現代的 實用字形을 調和시킨다.
- (3) 普遍的이고 合理的인 字形을 優先으로 한다.
- (4) 서체의 미감을 가급적 살리도록 한다.

〈유형 1〉 — : / → /

이 유형에서 우리는 一이라는 자소가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玤과 肨을 비교하면 丰의 一이라는 자소가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康熙字典』을 비롯한 전통 字典에서 쓰이는 예에 따라, 玤에서 보이는 자소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玤 ↔ 肨, 蚌

〈유형 2〉 \의 모양·위치·방향

이 유형에서는 우선 卞, 芥과 汴, 抃을 비교해 보면 같은 丶이 다른 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한다. 여기에서는 卞이라는 자소를 抃에서 보이는 자소로 통 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원래 丶이라는 자소가 가장 보편적 으로 쓰이는 모양. 위치, 방향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卞. 犿 ↔ 汴. 抃

炷. 娃 ↔ 主. 住

이러한 원칙을 확장하여 ㅗ의 형태를 가진 글자를 모두 우리가 筆寫에서 쓰는 ㅗ의 형태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형태상 매우 유사한 市(시)와 市(불) 두 글자 및 이들을 자소로 하여 구성된 글자의 구별이 쉬워지는 이점이 생긴다.

亡, 忘, 校, 亥, 享 \rightarrow 亡, 忘, 校, 亥, 享 市, 柿, 鈰, 姉 \rightarrow 市, 柿, 鈰, 姉

〈유형 3〉 勺: 勺→勺

이 유형에서는 勺이라는 자소와 勺이라는 자소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 즉 酌, 約, 葯, 喲, 菂, 灼, 彴 등에서는 勺으로 되어 있지만 拧, 的, 蚐, 豹, 馰, 趵,

的, 箹, 芍, 灼, 均, 妁, 汋, 汋 등 대부분의 글자에서는 勺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勺을 기준 자소로 삼아 표준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酌, 約, 葯, 灼, 约 ↔ 扚, 旳, 豹, 葯, 芍

〈유형 4〉 八:八 → 八 八:ハ → 八

이 유형에서는 八이라는 자소가 八 또는 八로 변형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즉 兗, 渷에서는 八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지만, 袞, 滾, 兖, 衮 등에서는 八 또는 八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되어 있으며, 增, 贈, 曾, 惟, 翳 등에서는 八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甑에서는 八로 변형되었다. 이것은 원래의 자소인 八로 표준화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兌, 曾, 公, 兮, 分 등의 글자에서 八을 표준 자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衰, 滾, 兖, 衮 ↔ 克, 渷 甑 ↔ 增. 贈. 曾. 憎. 贈

〈유형 5〉 二: ?(ン) → ?(ン)

이 유형에서는 같이라는 자소가 그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次, 依, 校, 紋, 資, 姿, 恣, 諮, 咨, 瓷, 茨, 室 등에서는 같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지만, 粢, 粢에서는 그 모습이 二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다. 또 匀, 鈞, 筠, 畇 등에서는 勻 내부에 같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呁, 抣, 汋 등에서는 勻 내부의 자소가 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같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것은 그의 모습이 같의 변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案, 粢 ↔ 次, 依, 核, 紋昀, 钧, 约 ↔ 匀, 鈞, 筠, 畇

〈유형 6〉 □:□→ □,□

이 유형에서는 匚과 匚의 쓰임이 혼돈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匚+舊/의 글자가 /匚+舊/의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 원래 자소 匚와 결합되는 글자인 匹, 匽, 匾, 匿, 區 등이 匚과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각각 원래의 자소와 결합시킴으로써 자형을 고쳐주어야 할 것이다.

舊→舊

匹, 匽, 匾, 匿, 區, 嫗 → 匹, 匽, 匾, 匿, 區, 嫗

다만, 이 유형의 글자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형태상 아무런 구분없이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자소 중의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유형 7〉 厶 : □ → □

口라는 자소가 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襁 襁, 雕 등에서는 口라는 자소가 쓰였지만 縫 漒에서는 口라는 자소가 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원래의 자소를 口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스라는 자소도 口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繈、漒↔襁、襁、雖

〈유형 8〉 久:久 → 久

 이 자소가 久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세로 내려 긋는 획의 모습이 다르다. 久를 久와 구분하는 것 자체에 별 의미가 없고 또 보편적으로 久를 자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 久의 모습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중국과 일 본에서는 자소 久의 모습이 이미 단순화한 久의 형태로 통일되어 있다.

〈유형 9〉 女

이 유형에서는 女라는 자소의 모습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女,佞, 侫, 妄, 麥, 麥, 妻, 妾에서는 女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으나 奴, 呶, 努, 怒, 妃, 如, 好, 妙, 妨, 姑, 妹, 姓, 始, 姉, 姦, 威, 姻 등에서는 女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달라져 있다. 즉 —이라는 자소의 어디에서 내려긋는 획이 시작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심지어 姦에서는 같은 글자 안에서도 女의 모습이 각각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획이 교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女의 모습으로 통일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女. 佞. 佞 ↔ 奴. 努. 怒. 姻. 姦

〈유형 10〉 日: /□+二/ → 日

이 유형에서는 日과 /□+二/라는 자소의 모습이 통일되지 않아 매우 혼란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日부에 속하는 最와 曼자를 자소로 하는 글자 중 最, 撮, 嘬와 慢, 漫, 鰻, 蔓, 饅, 慢, 慢, 幔, 幔, 縵, 謾, 鏝, 鬘 등이 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緩과 熳, 蟃, 鄤 등은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한편, /□+二/를 자소로 하는 글자 중 冒, 冔, 瑁, 娟, 毷, 萺, 蜎, 傝, 溻, 溻, 溻, 闆, 闆, 圙 등에서는 이 모습이 지켜지고 있는 반면, 冕, 悺, 榻, 塌, 塌, 毾 등에서는 이모습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日을 자소로 하고 있는 글자들이 /□+二/의 형태로 쓰이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日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二/를 자소로 하는 글자들이 일반적으로 원래의 형태대로 쓰이기보다는

□의 모습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글자들에 대해서는 자소의 형태를 바꾸어 曰로 통일시키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라 생각한다.

最, 撮, 嘬, 慢, 漫, 鰻, 嫚, 幔 ↔ 繓, 熳, 蟃, 鄤 冒, 冔, 瑁, 毷, 遏, 鰯 ↔ 冕, 帽, 榻, 塌, 搨, 毾

〈유형 11〉戶:戸→戶

이 유형의 글자들에서는 자소 戶의 형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扈, 芦, 戾, 房, 所, 后, 戽, 槴, 槴, 編, 篇, 偏, 遍, 扁, 扇, 煽, 騸, 悷 등 대부분의 글자에서 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炉, 滬, 戾, 搧 등 일부 글자에서는 변형된 戸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글자는 원래 자소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扈, 芦, 戾, 房, 所, 槴, 偏, 煽 ↔ 炉, 滬, 戾, 搧

〈유형 12〉 **臣**: 巨, 巨 → **巨**

이 유형에서는 巨라는 자소의 모습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자소 巨를 가진 글자 중 巨, 拒, 距, 拒, 炬, 柜, 岠, 廳, 駏, 蛭, 雜, 耟 등의 글자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글자들이 巨 또는 巨와 유사한 형태의 자소로 변형되어 있으며, 정작 巨의 형태를 지닌 글자는 詎, 鉅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글자의 내원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총획수에서도 4획(巨, 巨)과 5획(巨)으로 셈으로 인해 획의 차이가 나게 된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巨 또는 巨와 유사한 자소와 결합한 글자들은 訛字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巨자가 工부에 속하는 글자임을 감안하여 工의 형태를 나타내어 자소의 형태를 분명히 드러내 주어야할 것이다.

巨, 拒, 距, 渠, 炬, 柜, 螶, 耟 ↔ 詎, 鉅

이와 마찬가지로 臣을 자소로 하는 글자들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姫, 臩, 臨, 豎, 堅 등은 자소 臣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臥, 臦, 竪, 臧, 臟, 藏, 臧 등은 자소의 모습이 변형되어 자형의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것 역시 자소 臣의 모양을 정확하게 써야 할 것이다.

臥、臦、臧、臟、藏、臧 ↔ 姫、臩、臨

〈유형 13〉 廴: 廴 → 廴

文:文→文

交:交→交

更:更→更

위의 네 가지 자소는 延, 廷, 庭, 廸, 建, 健과 汶, 紋, 蚊, 旼, 玟, 旻, 그리고 校, 絞, 皎, 皎, 皎, 皎, 荥, 및 便, 鞭, 硬, 梗, 埂, 粳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글자에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煡, 煨, 詨, 駮, 礟, 骾 등 극히 일부의 글자에서는 起筆 强勢를 제거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글자는 원래 자소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延, 廷, 庭, 她, 建, 健 ↔ 健 汶, 紋, 蚊, 旼, 玟, 旻 ↔ 燘 校, 絞, 鮫, 骹, 茭 ↔ 詨, 駮, 礮 便, 鞭, 硬, 梗, 埂, 綆 ↔ 骾

이와 유사한 예로 劔과 剏이 있는데, 이 두 글자 역시 起筆 强勢를 두어야할 것이다.

참고로 중국, 대만, 일본에서 모두 起筆 强勢를 제거한 자소로 통일하여 글자의 형태를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아래아 혼글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워드97등 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의 한자 폰트 역시 起筆 强勢를 제거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단순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유형의 예와 정반대의 양상을 띠는 글자가 몇 개 발견된다. 즉 중국의 簡化字인 义와 일본 약자인 斉, 斎 등의 자소 乂와 文이 각각 起筆 强勢를 두어 乂와 文으로 변형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済, 剤, 伩, 孝의 경우처럼 외국의 약자이거나 전통적으로 쓰이는 속자일 때는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 제안 한자 중에서 辺과 静 및 関은 형태상 조금

의 변화를 주지 않고 외국의 것을 그대로 따른 것에 해당하는데, 앞의 원칙에 의거하였다고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유형 14〉 冉: 冉 → 冉

이 유형에서는 冉과 冉이라는 자소의 사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再, 侢, 苒, 講, 構에서는 冉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冉, 呥, 姌, 抩, 珃, 蚺, 袡, 稱, 稱, 稱, 稱, 籍, 籍, 籍, 藉, 藉, 藉, 藉, 藉, 藉, 藉, 苗, 苗, 苗, 苗, 苗, 中, 인본에서는 뭐의 모습으로 통일하였다. 우리의 筆寫 형태에서 보통 冉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冉, 呥, 褠, 遘 ↔ 再, 苒, 購, 講

〈유형 15〉 四: 罒 → 四

이 유형의 글자는 賣를 자소로 하는 글자에서 보이는데, 四가 때로 쓰인 경우가 적지 않아 거의 절반을 차지 한다. 즉 殰, 瀆, 牘, 犢, 犢, 贖, 讀, 讀 등은 四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賣, 檀, 蕒, 黷, 顴, 蕒 등은 때의 형태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원래 賣는 자소 四로 구성되는 글자이므로 이를 자소로 하는 글자는 모두 자소 四의 賣로 통일하여 써야 할 것이다.

賣, 櫝, 藚, 黷, 覿 ↔ 瀆, **牘, 犢, 贖**, 讀

〈유형 16〉 两 → 两의 아랫부분의 모양을 罒으로 정한다.

이 유형에서는 襾라는 자소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覂, 覄,動, 覈, 覊, 禪, 簟, 禪, 鐔 등의 글자는 자소 襾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要, 優, 覆, 覇, 覃, 潭, 譚, 驔, 驛 등의 글자는 襾의 아랫부분이 때로 변형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자소가 쓰이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筆寫에서 보편적으로 아랫부분을 때로 변형하여 쓰고 있으며 중국, 대만, 일본에서도 대부분 변형된 자소로 통일하고 있다. 筆寫의 편의를 위해 襾의 아랫부분의 모양을 때으로 정하여 자형을 통

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覂, 栗, 覈, 覊, 簟, 橝 ↔ 要, 偠, 覆, 覇, 覃, 潭

〈유형 17〉 垔: 亜→ 垔

이 유형에서는 자소 壁으로 구성되는 글자들 중의 일부가 蛭의 형태로 변형 되어 쓰이고 있다. 즉 湮, 壓, 歅, 禋 등의 글자가 자소 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堙, 闉, 陻 등 일부 글자는 변형된 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유 형의 글자는 대부분 원래 자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壁으로 통 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堙, 闉, 陻 ↔ 潭, 凐, 歅, 禋

〈유형 18〉 青:青→靑

碃, 埥, 崝, 腈, 鼱 ↔ 淸, 請, 精, 情, 靜, 靖

〈유형 19〉 俞: 兪, 俞, 兪, 兪 → 兪

兪라는 자소를 포함하고 있는 글자의 모습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소 兪를 구성하고 있는 入, 一, 月, 《의 네 성분 중 一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 兪, 兪, 兪, 兪, 兪, ᅙ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喩, 愈, 偸, 踰, 渝, 渝, 渝, 渝, 渝, 渝, 渝 등에서는 원래의 형태인 兪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癥에서는 원래의 자소 兪의 入이 人으로 변형되었고 輸에서는 /人+—+ 月+ 비/로 변형되어 兪로 쓰였으며, 窬에서는 /人+—+月+ 《/로 변형되었고 貐, 隃, 瑜, 隃, 瑜, 廠, 添 등에서는 /入+—+月+ 《/로 변형되었고 貐, 隃, 瑜, 隃, 添 등에서는 /入+—+月+ 《/로 변형되었고

였다.

이 유형의 글자는 대부분 원래 자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兪 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자형의 단순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중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愈로 통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喻,愈,愉,踰,癒,偷↔癒

↔騟

↔窬

↔ 貐, 腧, 羭, 腧, 蕍

〈유형 20〉 月: 月 → 月

前 또는 朝를 자소로 하여 구성된 글자에서 月과 [8의 두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朝는 月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嘲는 月의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다. 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揃, 湔, 瑐, 葥, 糋, 媊, 譾, 騚 등의 글자에서 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前, 剪, 煎, 箭, 翦, 鬅 등의 글자에서는 [8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前와 朝가 원래 舟에서 변형된 [8]를 자소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글자라는 사실에 의거하면 이 유형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8]의 형태로 통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소를 포함하고 있는 服, 概, 箙, 菔, 鵬 등의 글자가모두 月의 형태를 따르고 있고 字典이나 실생활에서 이 자소가 月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글자를 月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朝↔嘲

揃, 湔, 糋, 譾, 騚 ↔ 剪, 煎, 箭, 翦

〈유형 21〉 食:食→食

글자의 아랫부분에 자소 食이 위치할 때 형태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養, 養, 養, 餐, 饗, 饗, 饜 등의 글자에서는 食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飺, 餈, 餥, 餮, 儀, 攁 등의 글자에서는 食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자소 食을 포 함하고 있는 글자들은 대부분 食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 형태의 자소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鉴, 餈, 鍪, 饕, 懩 ↔ 養, 癢, 餐, 饗, 饜

〈유형 22〉 ++: ++: ++ → ++

文字學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이 유형의 글자는 각각 그 원형에 따라 #와 바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굳이 원래의 형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비록 필획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의 형태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苤, 茀, 蓪, 蒽, 蒗 ↔ 花, 蕃, 英, 荷, 莖
萑, 彠, 確, 擏, 髋 ↔ 穫, 菠, 敬, 驚, 觀, 勸, 夢, 幭
↔ 蘿

〈유형 23〉 戍:戌→戍

蔑의 형태를 가진 글자는 蔑 1자만이 자소 戍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幭, 懱, 篾, 衊, 衊, 幭, 襪, 襪, 礣 등의 나머지 글자들은 戌을 자소로 하고 있 다. 이 글자들은 원래 戍를 자소로 하여 구성된 것들이므로 戍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幭, 幭, 衊, 衊, 襪, 襪, 礣 ↔ 蔑

4. 맺음말

우리나라가 ISO에 제안한 한자는 자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의한 표준화를 거쳐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동일한 글자를 자소로 사용하고 있 는 글자 간에도 그 자소의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여 통일성을 잃은 현 상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형상의 오류까지도 발견되고 있다. 이 는 이미 이 글의 모두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한자의 교육과 컴퓨터에서의 한자 사용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적시한 訛字, 즉 자형이 잘못된 글자는 시급히 바로 잡아 정확한 형태의 것으로 고쳐야 하며, 모 든 자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표준화를 함으로써 형 태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검토하고 제시한 표준화안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의견으로 최종적인 표준안을 만들어내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만든 것일 뿐이다. 한자 자형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표준화안은 여러 書體를 한 벌의 폰트집에 동시에 싣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모순점과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印刷體, 筆寫體 등 다양한 서체를 개발하고 필자가 이 글에서 다룬 우리나라 한자 자형의 문제와 개선안을 참고하여 각 서체마다 적합한 자형을 확정한다면 이러한 모순점과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ISO/IEC 10646 Amendment 13』(1997). 국립기술품질원. 『ISO/IEC 10646 Extension A』(1997). 국립기술품질원. 『康熙字典』(1997). 北京. 中華書局.

許愼 저(1997). 『說文解字注』. 段玉裁 주. 臺北: 蘭臺書局.

崔南善(1915).『新字典』、서울: 朝鮮光文會.

諸橋轍次(1986)。『大漢和辭典』(1-13) 東京: 大修館書店

『中文大辭典』(1-10)(1976). 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漢語大字典』(1-8)(1993). 湖北 : 湖北辭書出版社・四川辭書出版社.

민병준·서경호·이재훈.(1998. 12). 『國際 文字 코드 提案 漢字의 標準化에 대한 研究』(하권). 「KS C 5700 漢字形 표준안에 대한 연구」. 문화관 광부.